



## 미 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차익실현

### 미국 증시 리뷰

20 일(화) 미국 증시는 그동안 상승에 대한 과열 부담 및 물가 재상승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나스닥 중심으로 약세. (다우 -0.17%, S&P500 -0.6%, 나스닥 -0.92%). 업종별로 필수소비재(+1.1%)만이 강세, IT(-1.3%), 경기소비재(-1%), 에너지(-1%)의 낙폭이 가장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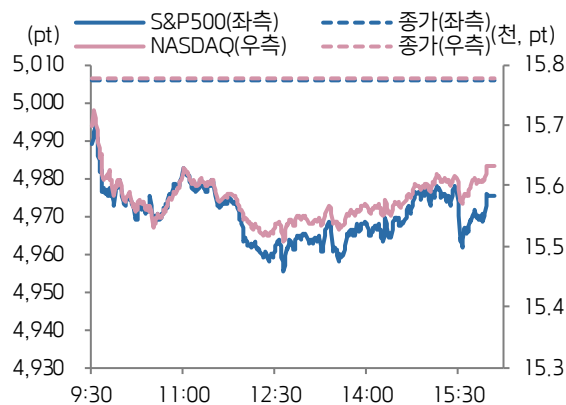
중국 인민은행은 전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모기지 금리인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는 기존 4.20%에서 3.95%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bp 인하. 5~15bp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 상회, 1년 만기 LPR 은 3.45%로 그대로 유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산되고 금융시장으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 제기, 위안화 약세로 인한 자본 유출 가능성과 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 다음 달 양회에서 추가 부양책 발표 기대감 상승.

애플(-0.41%), 아마존(-1.43%), 메타(-0.33%), 테슬라(-3.1%), 엔비디아(-4.35%) 등 시총 상위주 대부분 약세. 테슬라는 포드 전기차 가격 인하 및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에 급락. 이날 포드는 전기차 SUV 모델 머스탱 마하-E 2023년형 제품 가격을 3100~8100달러 인하를 발표, 전기차 업체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파운드리스(2.1%), 인텔(2.43%)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칩셋법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가 강세. 인텔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가 오하이오-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 및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인텔 측과 100억 달러(약 13조 3,8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보도. 전일 미 상무부는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 달러(약 2조 4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 협약을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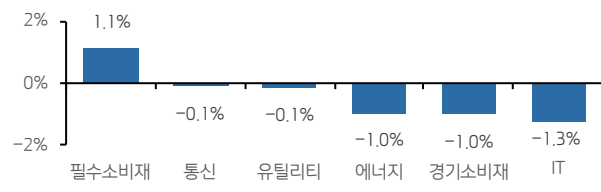
월마트(3.2%)는 매출 YOY 5.7% 증가한 1,734억 달러(예상 1,709억 달러), EPS 1.80달러(예상치 1.64달러)로 예상치 모두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 소매업체의 핵심 지표인 동일 매장 매출은 1월 말까지 분기에 미국 매장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점이 긍정적. 홈디포(0.1%)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미국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치고 연간 가이드런스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강보합권.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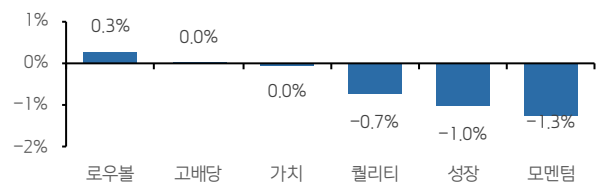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57.79	-0.84%	USD/KRW	1,337.47	+0.18%
코스피 200	356.92	-1.1%	달러 지수	104.06	-0.22%
코스닥	866.17	+0.9%	EUR/USD	1.08	+0%
코스닥 150	1,367.91	+0.93%	USD/CNH	7.20	+0%
S&P500	4,975.51	-0.6%	USD/JPY	149.96	-0.03%
NASDAQ	15,630.78	-0.92%	채권시장		
다우	38,563.80	-0.17%	국고채 3년	3.407	+1.1bp
VIX	15.42	+4.83%	국고채 10년	3.492	+2.5bp
러셀 2000	2,004.14	-1.41%	미국 국채 2년	4.612	-3bp
필라. 반도체	4,456.87	-1.56%	미국 국채 10년	4.275	-0.4bp
다우 운송	15,463.77	-1.06%	미국 국채 30년	4.448	+1.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760.28	-0.06%	WTI	77.04	-1.81%
MSCI 전세계 지수	750.61	+0.05%	브렌트유	82.58	-1.17%
MSCI DM 지수	3,286.86	+0.05%	금	2039.8	+0.78%
MSCI EM 지수	1,016.38	+0.01%	은	23.14	-1.44%
MSCI 한국 ETF	64.30	+0.17%	구리	386.75	+0.7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1.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증시 약세, 1월 FOMC 경계심리 등 대외 부담으로 인한 국내 증시 약세 가능성 2. 실적 경계심리, 차익실현 등으로 인한 엔비디아 주가 약세가 국내 AI 주에 미치는 영향 3. 전일 수급 이탈이 있었던 저 PBR 업종의 주가 변화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월 이후 매크로 상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던 재료는 인플레이션이었으며, 잇따른 1월 CPI, PPI 쇼크가 주요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 지난 2월 13일에 발표된 BofA의 2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도 주가에 잠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Tail risk)으로 “고 인플레이션(응답률 27%)”이 “지정학적 긴장(24%)”을 제치고 1순위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대변(지난 1월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25%, 고 인플레이션이 20%를 차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외신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전 몇 차례 코멘트에서 언급했듯이, 3월 FOMC 전까지 2월 CPI 라는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 이벤트를 확인하고 나서 전략 수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는 지수 상단 제약 문제와는 별개로 지수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더 나아가, 1월 FOMC 의사록 등 여타 연준 발 불확실성이 부각되더라도, 주가의 진폭만 키울 뿐이지 지수 하단 자체는 견조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경기와 관련이 되어 있음. 경기 모멘텀 측정 시 활용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업데이트 해보면, 미국은 1월 16일 -2.4pt 에서 저점을 찍은 후 20일 현재 +40.9pt 까지 급반등 했으며, 유로존은 지난 12월 18일 -46.0pt에서 저점 형성 후 현재 +34.5pt까지 올라온 상황. 경기 기대치가 낮은 중국조차도 1월 17일 -19.4pt를 기점으로 현재 +10.2pt까지 모멘텀을 회복하는 중이고, 전일에는 5년만기 LPR(대출우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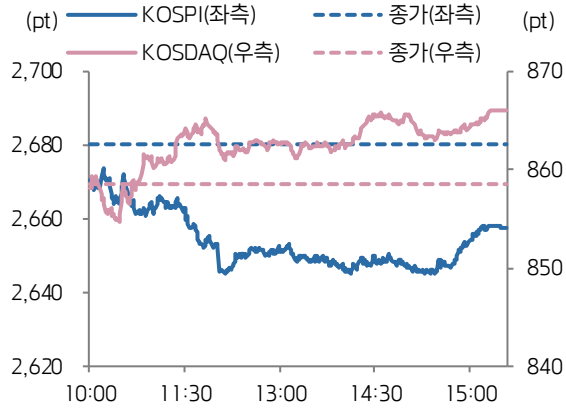
물론 “경기 모멘텀 호조 = 증시 강세”의 공식이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긴 함. 그렇지만 고금리의 부정적인 효과로 하드랜딩 or 침체 가능성을 반영해왔던 주식시장에서는 소프트랜딩으로만 귀결되더라도 안도 요인이 될 수 있음.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번의 연준의 금리인상기 이후 출몰한 경기 둔화 사례에서 총 3번(1965~66년, 1983~84년, 1993~95년)의 소프트랜딩을 달성했으며, 그 기간 중 미국 S&P500은 평균적으로 고점대비 약 4% 하락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참고해볼 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도 미국, 유로존, 중국 등 핵심 교역국들의 경기가 생각보다 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 2월 남은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저 PBR 업종의 Sell-on,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등과 같은 잠재 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에 대한 증시 반응은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당사의 전망을 유지.

전일 국내 증시는 주 후반 예정된 1월 FOMC 의사록, 엔비디아 실적 관망심리 속 은행, 자동차, 지주 등 저 밸류 업종에서 이차전지, AI, 초전도체 등 고 밸류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일어나며 혼조세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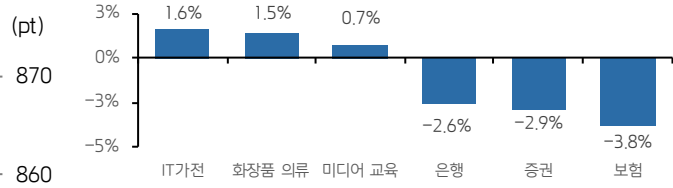
금일에는 전일 실적 발표 전 차익실현에 따른 엔비디아(-4.4%) 등 미국 증시 약세, 1월 FOMC 의사록 대기심리 등 대외 부담 요인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약세 이외에도, 테슬라(-3.1%) 등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재고 부담, 대선 리스크 잔존 등으로 동반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최근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등 성장주의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이 같은 고밸류 업종 수급 변화는 또 다시 저 PBR 업종으로 시장 수급을 이동 시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중 지수 전반에 걸친 주가 밀림 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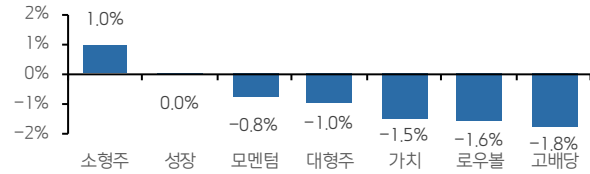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